삶서 진지하게 바라보는 '죽음' 문제

국립민속博 · 목아博 공동기획전
'망자의 길, 산자의 길'
목아박물관 12월 31일까지

십대왕도 등 유물 · 자료 70여점 선보여
불교사상 바탕 사후세계관 · 의례 조명
우리문화 '죽음' 다룬 다양한 전통 소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극락지옥도(137.5×200, 목아박물관, 20세기).


망자를 인도하는 '번'.

누구나 언젠가는 맞이해야 하는 죽음에 대한 문제는 분명 인간에게 삶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 살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죽음'을 바라보기 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김종대)은 목아박물관(관장 박우택)과 함께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목아박물관에서 K-museums 공동기획전 '망자의 길, 산자의 길'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유물과 자료 70여 점을 통해 불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우리의 전통적인 사후세계관과 현대에도 전승되고 있는 의례들을 조명한다.

관람객들은 전시를 통해 평소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를 성찰해보고,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의미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볼 수 있다. 전시는 프롤로그와 1부 '삶을 성찰하다', 2부 '넋을 인도하다', 에필로그로 구성됐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상여, 극락지옥도, 진광대왕도, 초강대왕도, 목조동자입상, 지장보살상, 아미타설법도, 법고, 바라, 범종, 번, 십대왕도 등이 있다.

△상여(20×100×150, 목아박물관, 20세기)는 경남 산청 지역에서 수집된 상여로, 시신이 안치된 관을 장지까지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이다. 살던 집과 마을을 떠나 장지로 향하는 여정처럼 망자는 이승을 떠나 저승길을 나선다.

△극락지옥도(137.5×200, 목아박물관, 20세기)는 상 · 하단으로 나누어 극락과 지옥을 묘사한 그림이다. 상단은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극락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꽃이 만발하고 무지개가 뜬 가운데 천인과 동자들이 노니는 모습이다. 하단은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4개의 지옥을 표현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칼날이 뾰족하게 돋아난 도산지옥, 아래는 끓는 솥에 떨어지는 확탕지옥, 오른쪽 위에는 큰 돌에 눌리는 대애지옥, 아래는 염라대왕이 업경으로 죄를 심판하는 모습이 각각 그려져 있다.

△진광대왕도(148.9×77.8, 목아박물관, 19세기)는 시왕 중의 첫 번째인 진광대왕이 명부세계에서 심판하는 장면을 표현한 그림이다. 아래에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그리고 있다.

△초강대왕도(153.4×106.2, 목아박물관, 1828)는 시왕 가운데 두 번째인 초강대왕의 심판장을 묘사한 그림이다. 아래에는 죄인을 끓는 솥에 넣는 확탕지옥이,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는 지장보살이 석정을 들고 서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지장보살상(60×78×105, 목아박물관, 20세기)은 명부세계의 주존인 지장보살을 형상화한 것이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한다. 때문에 망자의 천도와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아미타설법도(151×91, 목아박물관, 20세기)는 아미타불이 서방정토에서 설법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망자가 극락세계와 같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천도재의 주불로 아미타불을 모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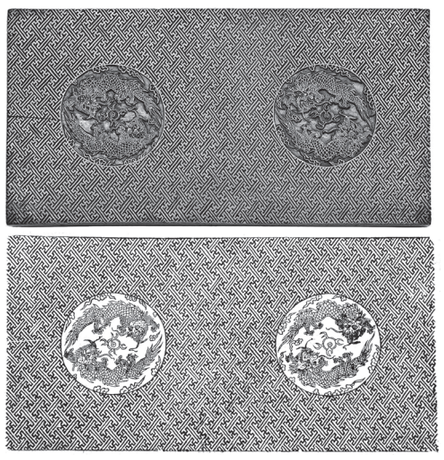
'시왕을 만나다'와 '나를 돌아보다'로 구성된 1부에서는 망자의 여로를 따라 시왕(十王)의 심판과 윤회(輪回)라는 죽음에 대한 불교의 신화적 해석을 보여준다(대표 자료 - 극락지옥도).

'지장보살에 귀의하다'와 바리공주를 따르다'로 구성된 2부에서는 산 자의 도리로서 불교와 무속에서의 각기 다른 형태로 전승되어 온 의례들을 보여준다(대표 자료 - 지장보살상). 관람객들은 잘 알려진 유교식 상례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 속에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을 기리는 전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쇼케이스 속에 박제된 전시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삶의 현장들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전통을 담았다. 예컨대 효율성을 강조하는 3일장이 제도화된 오늘날, 불교의 천도재(사십구재)는 49일 동안 죽은 이와 보다 인간적으로 천천히 이별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불교에서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이 죽으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받아 다시 태어난다고 말한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윤회(輪回)'라고 하고,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은 생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악업이 큰 자는 지옥에 떨어지거나 아귀, 짐승으로 태어나고, 선업을 쌓는 자는 천상계에 가거나 아수라,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때문에 망자가 윤회하기에 앞서 지나는 여정은 명부를 지키는 10명의 왕, 즉 명부시왕을 차례로 만나 생전의 삶을 심판받는 과정으로 그려진다.

누군가가 죽으면 이승에 남은 가족들은 망자가 조금이라도 좋은 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49재나 천도재 등을 통해 복덕을 쌓으려는 노력을 했다. 이는 시왕이나 지장보살과 같은 불교의 신화와 관련된 의례이지만 효(孝)와 가족애를 강조하는 유교문화의 영향 속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시왕신앙은 한국의 토착신앙체계인 무속과도 결합하여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천도를 기원하는 굿의 모티브를 이루게 되었다.

이번 전시는 죽은 자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결국은 산 자의 시점에서 마무리된다. 죽음을 마주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산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문의 (02)3704-3176


만자운용문판화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특별전

'한 · 중 전통문양판화의 세계'
7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 · 중 · 일 목판화로 제작됐던
전통문양 판화 100여 점 선봬
책표지용 판목, 벽지 등 눈길

한국과 중국 등에서 목판화로 만들어진 전통문양판화자료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7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 · 중 전통문양판화의 세계'를 개최한다.

동아시아 전통문양판화는 4차 산업시대의 주요한 콘텐츠인 디자인의 뿌리로 평가되고 있다. 한 · 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 등지에서 목판화로 제작된 전통문양 관련 능화판목, 벽지, 인출판화, 이불보, 보자기 등을 비롯하여 능화판으로 압인된 책표지 등을 포함해 100여 점을 선보인다.

우리나라 조상들은 삶 속에서 다양한 문양을 사용했다. 특히 책을 만들기 위해 목판 인쇄술인 능화판을 이용하여 책표지를 장식했으며, 벽지, 반지지, 이불보, 보자기 등에도 아름다운 목판화 문양을 새겨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중국의 경우에는 화지(花紙)라는 전통 문양 목판을 만들어 천에 염색을 하거나, 포장지 벽지 장황지(족자제작), 서판(서예용 종이) 등 아름답게 만들이기 위해 문양 목판화가 활용되었으며, 일본에서는 목판으로 색분해를 해서 다색으로 아름답게 만든 채색 문양들이 제작됐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목판화 문양과 일본의 다색문양 전시를 통해 전시 관람객에게 한국과 중국, 일본 문양판화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 전시에서 눈에 띄는 자료는 한국의 책표지를 압인하는데 사용한 다양한 능화판 판목과 판목을 활용해서 현대에 인출한 능화문양과 판목은 사라졌지만 이불보, 보자기, 벽지 등에 남아있는 전통문양들이다.

중국 문양으로는 화지라 하여 다양한 꽃문양이 장식된 포장지를 비롯하여 염색을 할 때 사용되었던 염색문양판과 글씨를 쓰는 종이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던 문양판화 등 한국과 다르게 일찍이 상업화되어 만들어진 문양판화들을 소개한다. 일본에서는 분색분판으로 만들어진 다색 문양지와 당지(唐紙)라 하여 목판화문양을 세계적인 디자인으로 키우고 있는 가라카미 판목을 비롯해 기모노 문양을 찍었던 판목도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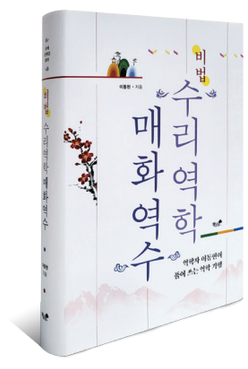
특별전 기간에는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지역 명사와 함께하는 숲속 판화여행' 등이 진행된다. 박재완 기자

다산민속사주
나는 역학이다

불교계의 역/학/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는 중국에서 기원하여
우리나라 불교계의 고승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역학비법입니다.

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숫자 운명을 품다)
사주공부 어렵게 하지마라, 이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다!!!
10만 명 실관, 17년 역학 강의, 〈나는역학이다〉 대표원장 이동현의 역학통변강의



1부터 9까지 아홉 가지 숫자를 사용하여 일진, 월운, 세운, 대운을 봅니다. 대단히 쉽고 간단하면서도 족집게처럼 명확하게 사주운세를 감명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 지음 | 550p | 180×253×41㎜
정가 ~~60,000원~~
판매가 54,000원(10% 할인)

◈ 책구입 & 동영상강의 신청 ◈
02)877-8771, 010-9687-0080
NAVER 나는 역학이다 검색

복을 가져다 주는 행운의 말발굽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사람도 재운이 있어야 돈도 벌고 명예도 얻습니다. 그러기에 금전운을 키워야 합니다.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도와주는 것이 있었으면 할 때 말발굽을 소장해 보세요. 말(馬)은 원래 서양 속담에 "말굽을 발견하면 행운이 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을 밟고 지나가지 않는 습성이 있어, 예로부터 액운을 막고 복을 가져다주는 상징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없던 복도 굴러 들어오고, 재산을 모으고, 장애물을 쉽게 넘어갑니다. (모든 일이 술술 뜻대로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들어온 복을 지켜주며, 선물용으로도 좋고 장식용으로도 좋습니다.


30만원 사이즈 54X47X5cm
*모든 액자틀은 원목을 사용합니다.


20만원 사이즈 49X34X5cm


11만원 사이즈 35X35X5cm

● 초진재보란?
재물에 욕심을 부리면 재물이 피해 가지만
재물을 사랑하고 초대하면 재물이 저절로 들어온단 뜻입니다.
*말(馬)이 실제로 사용한 굽이여서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가좌로 248 유튜브 "유명표구사" 검색
유명액자만물 Tel. 010-3308-6986
※ 전국택배 됩니다.

기업은행 041-002694-03-016 이종부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육과정 : 1년 (서울, 경기 의식 기준)
① 사물 다루는 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 시식
② 천도의식 : 49재,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시식
③ 각종 바라작법(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함)

개 강 일 2022년 9월 7일(수)
교육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수 업 료 매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장 소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경주시 강동면 모서별봉길 52-33)
접수 연락처 054)762-5888 / FAX : 054)762-5889
접수기간 상시모집(전화접수가능)
자 격 종단, 승속 관계없이 가능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장 김지공